

전북 농수산물 수출 3억달러 달성 '눈앞'

지난해 11월 닭고기·마른김 등 총 2억8987만달러 기록 전년비 41.5% 증가...6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 전국 1위

닭고기와 마른김 등을 중심으로 한 전북도의 농수산물 수출이 수출 3억 달러 고지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누계) 전라북도 농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1.5% 증가한 2억8987만 달러로 6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한 해 농수산물의 수출 목표인 2억4000만 달러를 20.8% 초과 달성한

실적으로 수출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농식품 수출 3억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출 증가율 41.5%는 전국 농수산물 수출 증가율(2.5% 중)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전국 9개 도부 중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축산물(164.1% 중), 가공농식품(55.6% 중), 신선농산물(11.7% 중)이 증가하고, 지난달에 감소세

로 들어선 수산물(1.9% 감)의 감소폭이 줄었으며 임산물(38.7% 감)의 수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축산물은 닭고기(1276만6000 달러, 249.6% 중)가 축산물 수출 비중 1위 품목이었으며, 가공농식품은 라면 수출이 증가하면서 면류(4363만1000 달러, 337.9% 중)가 상승세를 주도해 전년 동기대비 55.6% 증가했다.

수산물은 마른김(6009만 달러, 2.9% 감)이 주 수출 시장인 태국(4711만8000 달러, 14.0% 중)과 러시아(203만 달러, 25.0% 중) 수출이 늘었음에도 일본(817만2000 달러, 42.2% 감)과 중국

(27만 달러, 48.0% 감)으로의 수출이 감소해 총 2.9%가 줄었다.

조미김(4227만 달러, 1.7% 감)은 미국, 일본, 호주의 증가세에도 중국(2481만 2000 달러, 9.9% 감)이 감소세를 이어갔다.

조호일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지금의 추세라면 전북도 농식품 수출 3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함께 도내 농식품 수출업체 및 관계자들이 그간 불철주야 노력해준 결과로 올해 수출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지원 사업 발굴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지역 주요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설치

올해부터 순창지역 관광지에서 무료 와이파이(Wi-Fi)를 맛볼 수 있다.

순창군은 읍내 고추장민속마을 일대와 풍산면 섬진강오래캠핑장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와이파이를 클릭한 후 Korea Free WiFi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군은 한국관광공사, SK텔레콤과 함께 이곳에 4천만원을 들여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고창고인돌박물관이 고인돌유적 보존관리와 전문적인 해설을 위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 결정됐다. 고인돌박물관 전경. <고창군 제공>

고창 고인돌박물관 '1종 전문박물관' 됐다 개관 10년만에 전문적 해설·유물 보존관리 능력 인정

고창군 소재 고창고인돌박물관이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건립된 고창고인돌박물관이 고인돌유적 보존관리와 전문적인 해설을 위해 전북도로부터 관련법에 따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 결정됐다.

고창고인돌박물관이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전문적 해설과 선사시대 유물의 보존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관리능력을 인정받게 됐다.

특히 고창지역에서는 국가인증 박물관

이 없어 국가귀속 유물을 국립전주박물관 등에서 감상해야 했지만 이번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으로 국가귀속 유물 위탁처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군은 고인돌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박물관 법정 등록을 위해 유물기증 등에 공을 들여왔다.

군은 올해 고창 문화연구가 이병렬씨가 소장하고 있던 청자광구병 등 총 101점의 문화재를 기증받았다. 또 선사시대, 원삼국(삼한)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유물 총 60점을 구입해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고인돌 관련 유물을 갖추게 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인돌박물관이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앞으로 공립박물관으로서 수준 있는 전시와 소장 유물 등의 체계적 보존 및 연구,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국제학술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인돌 유적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건립된 고창고인돌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청동기시대 고인돌 박물관으로 수장고와 3D입체영상실, 기획전시실 등으로 꾸며져 있다.

박물관에는 고인돌 끌기모습, 청동기시대 마을을 재현해 생활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1대1모형으로 전시돼 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kwangju.co.kr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 감독 군산시, 사업장 총 23곳 적발

군산시가 지난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안전에 기여했다고 2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2018년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총 17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총 23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2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건, 폐수 무단방류 2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 14건 등 총 23건을 적발해 사법 조치 및 행정처분을 했다.

또 정기 지도점검 외 명절 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 및 민원유발사업장에 대해 전북도청, 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구축해 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전북지역 학교 학생자치활동 예산 의무 편성 전북교육청, 학생회비 미편성엔 징계위 회부

올해부터 전북지역의 각급 학교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학생회비 의무편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사를 통해 적발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학교기본운영비 중에 최소 1%는 학생회비로 편성할 것을 권고해왔는데 이제부터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충분한 권고기간을 두고 안내했다. 앞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것"이라며 "관련사항을 교육계획설명회 등에서 철저히 설명하라"고 담당부서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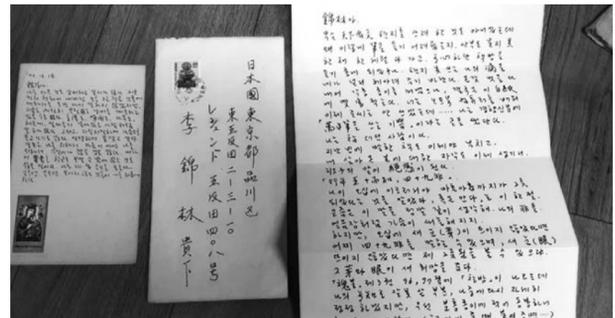
문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학교회계 재정운영방향과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예산설명회를 통해 안내해왔다.

예산확보는 학생회·학급회 등의 자치활동 권리와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 관련 정책 참여를 보장, 민주적이고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한편 김 교육감은 내년부턴 모든 혁신학교는 교육감 직권의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새로 발굴된 최명희의 편지와 엽서. <남원시 제공>

'혼불'의 저자 故 최명희 편지·엽서 발굴 김병중·이금란에게 보낸 총 3통...남원 혼불박물관 전시

대하소설 '혼불'의 저자인 고(故) 최명희(1947~1998) 작가가 김병중 전 서울대 교수와 친구 이금림 작가에게 보냈던 편지 2통과 엽서 1통이 발굴됐다.

김 전 교수가 공개한 편지는 길이 130cm, 폭 20cm 크기의 한지에 쓴 대영 서간문이다.

1980년 10월에 쓴 것으로, 김 전 교수가 최근 서가를 정리하며 우연히 발견해 남원시 혼불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작가에게 보낸 편지는 작품과 삶에 대한 그의 고뇌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1995년 8월 1일 작성됐다.

엽서도 이 작가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이 편지와 엽서는 최 작가의 다른 편지, 엽서와 함께 혼불박물관에 상설 전시된다.

혼불박물관은 2004년 혼불의 배경지인 남원시 사매면 노봉마을에 건립됐으며,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무료로 개방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실적 평가 행안부 최우수상

정읍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전국자치단체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정읍시는 조기시행 노력, 활성화 추진 노력, 업무추진 성과 등 정량지표 3개 분야와 조례 제·개정, 인력배치, 홍보·교

육, 고충민원 처리, 제도개선 등 9개 항목, 우수사례 발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4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의 활성화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서울터건축사사무소(주)

나주, 다도댐 부근,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150평~200평 개별 매매 가능
- 주인직매. 010-2680-8685